▼이스라엘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총리 관저를 에워싼 분노한 시민들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스라엘의 분노 '즉각 휴전 촉구' 70만 시위에 총파업

'휴전에 미온적' 네타냐후…총리실, 시위대에 에워싸여
정권 내부 갈등도 격화…"연립정부 붕괴로 이어질 수도"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가자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분노로 들끓고 있다.

수십만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인질 석방을 위한 즉각 휴전을 촉구한 데 이어 이스라엘 최대규모 노조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 2일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인질·실종자가족포럼은 미국 CNN 방송에 적어도 70만명이 시위에 나섰으며 텔아비브에서만 55만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시위대는 텔아비브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그의 대처를 강력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피살의 책임을 지고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질 가족들은 "휴전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질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고 공감 능력은 없다"고 비판했다.

예루살렘에서는 시위대가 총리실을 에워쌌다.

회원 80만의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는 휴전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2일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기와 '죽음의 정부에 반대한다'고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총파업에는 운송, 유통, 행정 등 분야 주요 노동단체가 가담했다.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 노조도 공항 운영을 중단했다.

여러 버스회사와 텔아비브·예루살렘 경전철 운영사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권 내부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내각 회의에서 "나는 부상자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고 배웠다. 이건 도덕적 수치다"고 비난하며 "인질이 살아있기를 바란다면 시간이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악의 축(이란과 대리세력)이 필라델피 축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틀째 거센 반대 여론을 마주하고서도 필라델피 회랑에 군 주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외신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이 같은 시위가 가자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이번 시위가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네타냐후 정권을 전복하고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히스타드루트는 지난해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정비 입법에 반기를 들었던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려 했을 때도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결국 목적을 달성한 바 있다. 텔레그래프도 이번 인질 피살과 시위가 휴전 협상은 물론 네타냐후 연립 정부의 전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비극이 어떤 면에서는 1972년 발생한 뮌헨 올림픽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며 "향후 수년간 이스라엘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지만 그가 정치적 생명 연장을 기대고 있는 연정은 취약하다며 갈란트 장관이 사임하거나 시위가 더 격화된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39-41도 폭염에…中 개학 일주일 연기

중국 내 일부 학교가 고온 현상 탓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

지난 2일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장시성 난창시 최소 4개 구(區)에서 폭염이 지속하자 당국이 초등학교 개학을 이날에서 오는 9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학부모들은 전날 오후 학교로부터 개학 연기를 통보받았다.

난창시 기상대는 전날 오전 최고 기온이 섭씨 39도에 육박하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주황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앞서 충칭시와 쓰촨성 당국이 관할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개학일을 이달 9일로 일주일 늦췄다.

이 가운데 쓰촨성 난충시의 경우 이달 1-4일 최고기온이 41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됐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뿐 아니라 충칭사범대와 충칭과학기술대 등 대학들도 이상 고온으로 개학을 연기했다.

3월에 시작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9월에 1학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유럽 학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확산

유럽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사진)을 금지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벨기에 프랑스어권 학교 수백 곳이 이르면 가을학기부터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이는 프랑스어권인 왈롱 지역의 교육당국이 초·중학교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학생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이른바 '사이버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당국은 애초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이후 확대 시행하려 했지만 상당수 학교가 당국의 전면 시행에 앞서 자발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다.

인접 국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프랑스도 이달 새 학기 시작에 맞춰 200개 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학교 안에 별도의 사물함을 두고 등교할 때 스마트폰을 이곳에 강제로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스마트폰 탓에 학생이 산만해지고 성적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PC, 스마트워치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일랜드 교육부는 지난달 말 초·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인자한 할아버지의 '10년여 끔찍 범죄' 발각
인터넷 채팅서 男 모집…아내에 잔혹 성범죄

아내에게 약물을 먹여 혼수상태로 만든 뒤 수년간 남성을 모집해 성폭행하게 한 프랑스의 70대 남편과 강간범들이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석 달간 재판받는다고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다.

올해 71세인 도미니크라는 남성은 2011년 7월-2020년 10월 아내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미니크의 제안을 받아들인 남성은 소방관, 언론인, 배달원, 교도관 등 총 72명으로, 이 기간 이뤄진 성폭행은 총 92건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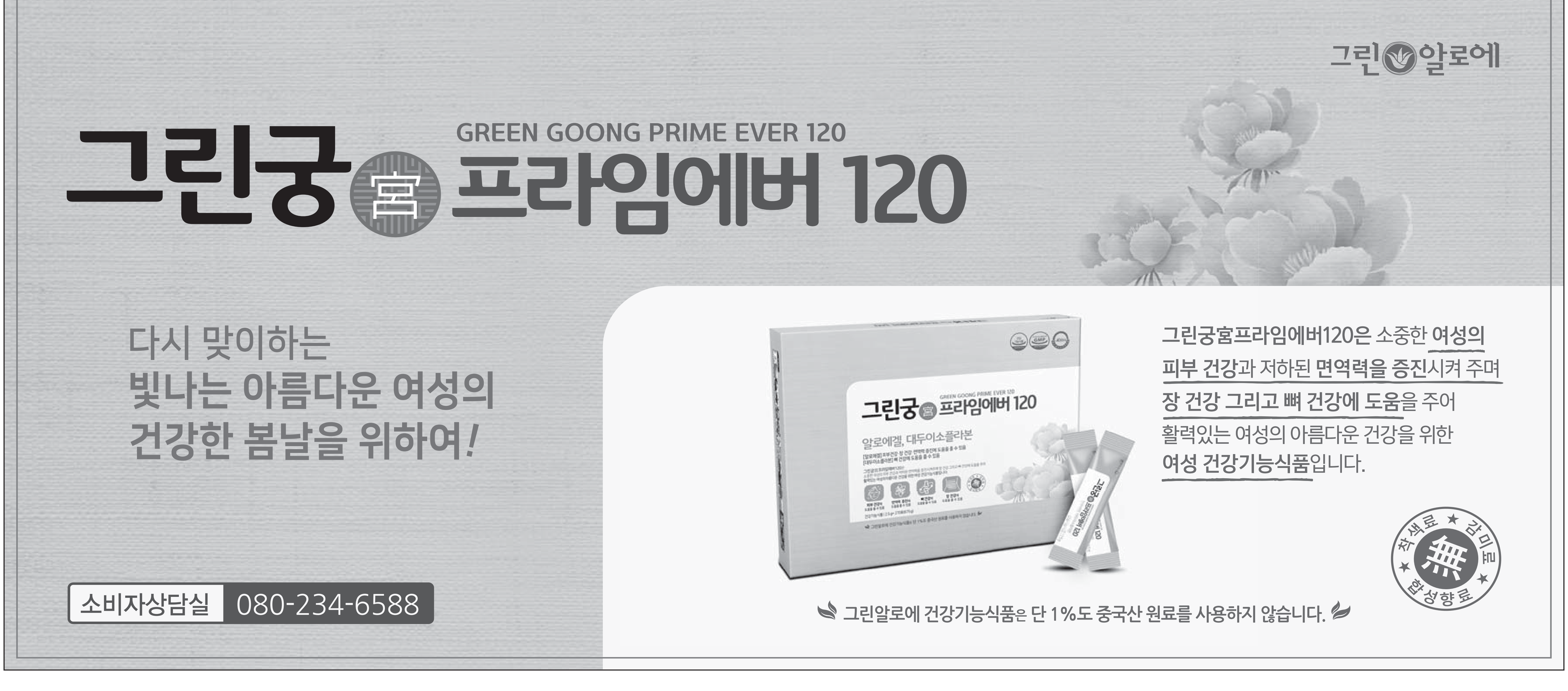
이들 남성 가운데 일부는 사망했고 일부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이는 51명이었다. 피고인 중 일부는 수사 중 석방됐으며 도미니크를 포함한 18명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도미니크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들 남성에게 향수나 담배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하고 차를 집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등 '행동 지침'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운영하는 채팅방에 들어왔다가 이 일이 성범죄라는 걸 깨닫고 그의 지침을 거부한 사람은 단 두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은 수사 과정에서 도미니크의 부인이 잠든 척 하는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행을 제안한 건 도미니크였기 때문에 자신은 강간범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도미니크의 범행은 그가 2020년 9월 동네의 한 슈퍼마켓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히면서 꼬리가 잡혔다.

수사 당국은 그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2만개가 넘는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

주변인들은 도미니크를 평소 인자한 할아버지이자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좋은 친구로 여겼으나 이번 일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받았다. /연합뉴스